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교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어린이주일 메시지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리더라고 지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진정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그가 발휘한 리더십은 3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연구가 계속 될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아버지 아브람과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의 많은 기도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신뢰했기에 낳은 자녀가 아들이면 죽여야 한다는 서슬이 시퍼런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양육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모세의 부모의 행동을 매우 특별한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낳은 지 석달이 지나자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부모는 갈대상자를 만들어 그곳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내기로 합니다. 방수가 될 수 있도록 갈대상자를 철저히 만들고, 애굽의 공주가 언제 나일강에 나와 목욕을 하는 지도 알아보고, 특별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말을 하게 할 지를 훈련시킨 것을 보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부모님들이여!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사명을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항 존 직 선 거

제15대 집사, 14대 권사 / 5월 15일(주) 공동의회

우리 교회 당회는 3월 9일 열린 정기당회에서 제 15대 집사 40명과 14대 권사 80명을 선출하는 항존 직 선거를 오는 5월 15일(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실시키로 하였다. 후보명단은 다음 주에 배포

된다. 남은 기간 동안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합당한 이들이 선출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여 주기 바란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전국에서 온 편지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2016년 5월 1일 **어린이주일** 서울교회로 모여라!!

신나는 레크레이션! 맛있는 파티! 행복한 선물!

유년부	1-3학년	7층 701호	9시-10시 30분
초등부	4-6학년	6층 601호	9시-10시 30분
유초등연합 2부	1-6학년	7층 701호	11시 20분-12시 40분

서울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02-558-1106 (대안·수도당로와 서울교회)

http://seoulchurch.or.kr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다양한 행사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아부는 우리가족 사진찍기와 신나는 미니올림픽을, 간식 및 비누방울 놀이 선물을 준비하였다. 유치부는 교사인형극, 솜사탕 파티를, 선물로 헬륨풍선과 반팔 티셔츠를 준다. 유년부, 초등부, 유초등연합2부는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라는 주제로 '친구초청잔치'를 연다.

신나는 레크레이션과 떡볶이 파티 그리고 선물 꾸러미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가진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아멘관현악단(대장:조웅기 집사)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임범창 집사의 지휘로 "The Majesty and Glory of Your name 놀라운 주의 능력", "주만 바라 볼지라", "Be Thou My Vision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등 네 곡을 연주한다.

교구별 체육대회

- 5월 5일(목) : 6교구 - 부천 생태공원
- 5월 14일(토) : 2교구 - 선정릉
- 3교구 - 양재시민의 숲
- 5교구 - 여주 바이블랜드
- 9교구 - 베델하우스
- 10교구 - 올림픽공원
- 12교구 - 수지 한일 쉼터
- 13교구 - 양재 시민의 숲
- 15교구 - 선정릉

나눔의 집

봄을 채 누리기도 전 여름이 다가오는 듯 가까운 햇살이 연일 내리쬐는 요즈음입니다.

몇 년째 입지도 않으면서 장롱을 차지하고 있는 옷들은 없으신가요? 또 잘 사용하지 않는 소형 가전제품들 때문에 주방도 항상 포화 상태입니다.

나눔의 집(지하3층)을 찾아주세요.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누군가가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깨끗하게 손질해서서 보내시면 더욱 큰 감사와 사랑으로 받게 됩니다.

16교구 체육대회

2016 교구별 체육대회는 지난 토요일(4/23) 16교구가 테이프를 끊었다. (양재시민의 숲)



이종운 원로 목사의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조상숭배에 대한 성경적 대답

(고전 10:23-33)

일본 강점기 시대 일본은 신사참배가 하나님의 민족적 의식이 지 종교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신사참배를 자행한 교회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신학자들과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제사는 윤리적인 것이지 결코 종교적인 행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제사는 조상에 대한 예배 행위인가, 아니면 공경의 표시인가?

1.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권능을 찬양하고 세상에서 그가 이루신 창조와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 중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

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2. 예배의 대상

예배에는 반드시 예배의 대상과 그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죽은 인간이 아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 성경은 조상에게가 아니고 조상의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조상의 하나님께'는 '아버지의 하나님께'라는 뜻으로 번역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조상들에게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영원토록 주 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받으시는 중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죽은 후에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이에게 예배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누가복음 23:43에서 예수님은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41절에서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했고, 예수님은 회개하는 강도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듯이 오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깊이 살피고 계신다.

3. 제사 제도에 대한 바른 이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제사 제도, 제물 문제를 가

지고 논란이 많았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명절이 될 때마다 부모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제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고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제사 제도는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중국에 추취 라고 하는 사람이 유교 철학을 만든 후에 소위 성리학을 만들어 냈는데 성리학에서 제사 제도가 착상 된 것이다. 그런데 역사를 잘 연구해 보면 조상을 향하여 제사하는 민족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밖에 없다. 아프리카에도 몇 나라, 몇 개의 부족에, 국한 되고 조상에게 제사하는 대부분의 민족은 유교권에 속한 아시아에 있다. 그러므로 제사는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 아니고 유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 다시 말해서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에 있는 풍습이다.

제사 제도는 기복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귀신이 살아서 자기 집안을 저주할까봐, 복을 못받을까봐 염려하는 기복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절대적으로 비성경적이다.

결론적으로 제사는 유교도덕이 만들어낸 하나의 도덕률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 아니다. 인간이 죽은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께 돌아가 충분한 기쁨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조상에게 제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음 주 계속)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하나님이 가르쳐준 복있는 사람이 되길



남태순 권사 (3교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이 할머니에게 2년동안 4명의 아기천사를 보내 주셨구나. 사랑하는 외손주 하은, 하륜, 재윤, 재경아 태어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4살이 되어 하은이와 재윤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하륜이와 재경이는 첫돌을 지나 말 배우고 분주하게 걸어다니고 높은데 올라가는 걸 보면 항상 걱정이 된다.

이 할머니는 너희들 생각만해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매일 보지 못하지만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 진다. 아주 활동적인 하은이가 태어난지 한달만에 장척악이 되어 전신 마취해서 수술을 받았을 때 모든 가족들이 하은이를 위해 기도했지. 교회 유아부에서 그렇게 뛰어 돌아다니더니 유아부에 올라가서는 울고 적음을

못했는데 지금은 엄마, 아빠 돌아보지도 않고 유아부에 뛰어 들어 가서 예배를 드리지. 침착하고 신중한 재윤이가 교회 일찍와서 유아부에서 찬양대 가운을 입고 의젓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 또 찬송가를 가지고 놀아 1~5장 부분과 어린이 찬양부분인 568장 부분이 다 헤어져 버렸지. 찬양 568장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하면 바닥에 탁 누워버리고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하면 자기 귀를 만지는 저 천진하고 순수한 이들에게 만복의 근원되신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라 믿는다.

사랑하는 손주들,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살며 앞으로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생기게 될텐데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이겨내면 너희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야.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복있는 사람이 되길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도한다.



다음 세대의 희망

나는 이렇게 차라워예요



김은송 (유년부)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나는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을 좋아하는 유년부 3학년 김은송입니다.

찬양을 하면 항상 기분이 좋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또 저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합니다. 책을 읽다보면 내가 책 속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릅니다. 또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을 말씀을 알게 됩니다.

얼마전에 학교에서 광림비전랜드에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예수님이 세워져 계시는 동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동상을 보고 “이히히 완전 이상해. 저게 뭐야? 무슨 양을 들고 있어. 완전

똥똥해.” 라고 하였습니다. 전 그때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 교회에서 배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참고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커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아프리카에 가서 학교도 지어주고 아픈 아이들도 도와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찬양도 많이 부르고 책도 많이 읽고 성경책도 많이 읽어서 선교사가 되고 남을 잘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감사의 존재들



남재은 집사 (12교구)

하린, 하람, 하율아!! 너희들은 엄마에게 “감사”를 알게해 준 귀한 선물들이란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철 없던 엄마를 너희들이 성숙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 알고 있지? 독감으로 체온이 40도까지 오르던 하람이의 열이 1도만 떨어져도 감사, 장염으로 물 한모금만 마셔도 토하던 하율이가 미음 한 수저를 넘겨도 감사, 왕따를 당하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다독여주는 하린이를 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심에 감사.

전 국민의 가슴을 찢어 놓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학교에서 돌아오는 너희들의 목소리에도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온단다.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달라고 끝도 없이 떼를 쓰는 하율이의 모습 속에, 엄마의 훈계에도 잘못을 알지 못하는 하람이의 모습 속에, 엄마를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때로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린이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있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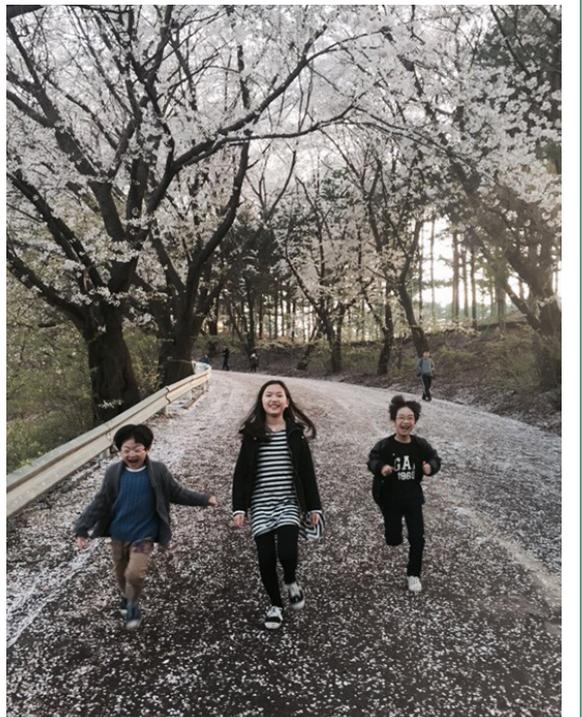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엄마가 위탁하여 양육하는 동안 엄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단다. 너희 세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겪는 일상들 속에서도 너희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너희들로 인해 늘 주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봐^^

엄마를 엄마되게 만들어준 하린, 하람, 하율아!!

엄마가 느끼는 주님의 사랑을 너희도 온전히 느낄 수 있기를 엄마는 매일 기도할게. 엄마는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은 엄마보다 더 너희를 많이 사랑하신단다^^

Happy Children's Day!!!



어린이 주일 특집

서울교회어린이들은...

어린이주일을 맞아 순례자가 어린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 지난 주일 짧은 설문 조사를 했다. 이번 설문조사 문항은 심진희 목사님, 고수는 전도사님과 함께 개발했고, 유년부(1~3학년), 초등부(4~6학년), 유치동연합 2부(1~6학년) 대상 197명이 참여하였다.

‘대체로 행복’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12명, 6.1%)’, ‘전혀 행복하지 않다(4명, 2.0%)’, 또는 ‘모르겠다(20명, 10.3%)’고 응답한 어린이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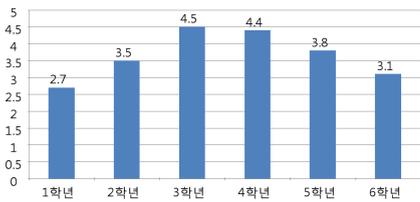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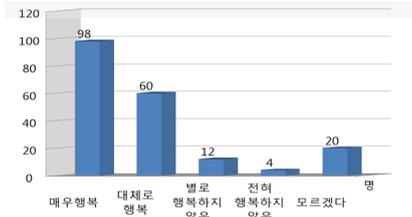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부모님들께서 마음에 잘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엢 6:4)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과제, 우리 어른들은 잘 감당하고 있나요?

설문조사 및 정리 : 노창훈 집사(편집부)

1. 학원은 몇 군데다 다니다요?

우리 교회 초등학생들은 평균 3.7곳의 학원에 다닙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학생들은 평균 2.7곳, 2학년은 3.5곳, 3학년은 4.5곳, 4학년은 4.4곳, 5학년은 3.8곳, 6학년은 3.1곳의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14명의 학생들은 학원을 한 곳도 안 다닌다고 답했고, 무려 16곳의 학원을 다닌다는 초등학생이 두 명 있었다.



5. 쉼 및 학교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냐요?

응답자 197명 중 170명이 ‘주일에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어린이들은 27명이었다. 그런데 **가정예배**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의 **절반 정도(97명, 49%)**만 드린다고 답했다. 가정예배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부모님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5월1일(주) 주일에배 설교를 섬김의 교회에서 한다. 5월3일(화) Refo.500대표자인 젤더 하위스(네덜란드)박사의 예배를 받는다. 5월7일(토) 사랑의 쌀운동, 몽골국제올림픽바타르대 이사회에서 개회설교를 한다.
- 목사안수 : 장재원 전도사(청년1부 지도) 5월 3일(화) 오후 7시 수서교회
- 주일식당봉사 : 루디아·도르가 전도회(5.1) 이삭 선교회(5.18)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2. TV와 인터넷은 하루에 몇 시간하냐요 용하냐요?

우리 교회 초등학생들은 하루 평균 1시간 6분 가량 TV를 시청하고, 인터넷은 42분 정도 사용한다고 한다. TV를 전혀 보지 않는다고 응답한 어린이들도 47명이나 됐고, ‘인터넷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한 어린이는 61명이었다.

말씀생활은 응답자의 65%에 달하는 128명의 어린이들이 하고 있다고 했고, **전도훈련도 142명(72%)의 어린이들이** ‘학교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권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서울교회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품고 밝고 씩씩하게 자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리더들이 되도록
2. 교구별 체육대회를 통해 다락방과 교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3. 5월 15일에 있는 항존직 선거 일정이 잘 준비되어 주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3. 하루에 잠은 몇 시간 차냐요?

이 질문에 우리 교회 초등학생들은 **평균 8시간 10분** 정도 잔다고 답했다. 이는 우리나라 초등학생 평균 수면시간 8시간 19분(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하지만 2015년 미국수면재단(NSF, National Sleep Foundation)이 발표한 초등학생연령의 권장수면시간 9~11시간에 비하면 우리 어린이들의 수면시간은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잠을 6,7시간만 자는 어린이도 54명(29.9%)이나 됐다.

6.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쥬냐요?

유일한 주관식 질문이었던 이 문항은 복수의 답을 허용했고, 147개의 의견이 쏟아졌다.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해’와 같은 애정표현이 아니라 ‘잘했어’라는 칭찬이었다.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응답 수(16건)는 칭찬을 원한다는 의견(50건)의 1/3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은 ‘여행가자(15건)’, ‘학원 가지 않아도 돼(10건)’, ‘게임해도 돼(9건)’, ‘장난감 사줄게(5건)’, ‘맛있는 것 먹으러 가자(4건)’의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학원 모두 끝자’, ‘친절하게 말해주세요’, ‘오늘은 늦잠 자라’ 등의 말을 듣고 싶다는 의견들도 눈에 띕니다. 한 4학년 어린이는 ‘그냥 아무 말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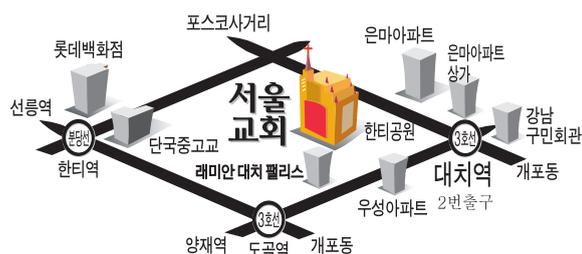
4. 스스로 어느 정도 행복하냐고 느끼냐요?

우리 어린이들은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이 질문에 답한 194명의 어린이들 중 81.4%에 달하는 158명의 어린이들이 ‘매우 행복’하거나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